

보도시점 2026. 8. 27.(목) 12:00 배포 2026. 8. 27.(목) 10:00

'26년 2분기 가계소득 +4.5% 증가 1~5분위 가구 모두 소득 증가

- 근로·사업·이전 소득 모두 증가
- 가계소비지출 증가, 처분가능소득·흑자액 증가

'26.2/4분기 가계소득은 임금 상승, 서비스업생산·소매판매 증가, 고용가
피해지원금 지급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(+0.8%)·사업소득(+3.8%)·이전소득
(+20.4%)이 모두 증가하며 총소득이 +4.5% 증가^{12분기연속}하였다. 물가상승률을
반영한 실질소득은 1.5% 증가하였다.

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2.1 (3/4)3.5 (4/4)4.0 ('26.1/4)2.4 **(2/4)4.5**

실질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0.0 (3/4)1.5 (4/4)1.6 ('26.1/4)0.4 **(2/4)1.5**

** 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321.8<+0.8%> (사업)97.7<+3.8%> (이전)93.1<+20.4%>

1~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, 1분위 가구(+7.5%)는 근로(+3.4%)·
이전(+9.8%)소득이 증가하며 총소득이 증가하였다. 5분위 가구(+3.8%)는
사업(+11.0%)·이전(+31.9%)소득이 증가하며 총소득이 증가하였다.

* 분위별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전체)+4.5 (1분위)+7.5 (2)+5.9 (3)+5.5 (4)+4.0 (5)+3.8

1분위 항목별 소득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근로) 3.4 (사업) △0.8 (이전) 9.8

5분위 항목별 소득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근로) △1.7 (사업) 11.0 (이전) 31.9

가계소비지출은 가정용품·가사서비스, 음식·숙박, 오락·문화 등을 중심으로
전체 +3.4% 증가하였으며,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도 +0.4%
증가하였다. 처분가능소득은 +5.2% 증가하였고, 흑자액은 9.6% 증가하였다.

* 처분가능소득 = 총소득 - 비소비지출 /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

소득 5분위배율은 4.97배로 전년동기대비 하락(△0.48배p)하였다. 다만,
분기별 가구소득은 계절성, 변동성 등으로 가계동향의 5분위 배율을 통해
소득분배를 분석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며,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는
가계금융복지조사(연간지표)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.

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(배, 2분기) : ('22)5.60 ('23)5.34 ('24)5.36 ('25)5.45 **('26)4.97**

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에 이어 잠재성장을 반등을 위한 「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」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, 물가안정 등 민생부담 경감에 만전을 기하며 고용여건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상세한 분석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민생경제국 복지경제과	책임자	과 장	정미현 (044-215-2850)
		담당자	사무관	김나운 (kny218@korea.kr)



전체 가구소득

□ (총소득)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9.5만원, 전년동기대비 +4.5% 증가

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2.1 (3/4)3.5 (4/4)4.0 ('26.1/4)2.4 (2/4)4.5

○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 +1.5% 증가

* 실질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0.0 (3/4)1.5 (4/4)1.6 ('26.1/4)0.4 (2/4)1.5

** 물가상승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2.1 (3/4)2.0 (4/4)2.4 ('26.1/4)2.1 (2/4)3.0

□ (소득항목별) 근로소득 · 사업소득 · 이전소득 모두 증가

* 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321.8<+0.8%> (사업)97.7<+3.8%> (이전)93.1<+20.4%>

○ (근로소득) 임금근로자 감소 및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0.8% 증가

* 근로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1.5 (3/4)1.1 (4/4)3.9 ('26.1/4)0.3 (2/4)0.8

** 임금근로자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: ('25.2/4)30.6 (3/4)31.4 (4/4)27.3 ('26.1/4)14.6 (2/4)△7.9
사업체임금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2.7 (3/4)0.4 (4/4)4.7 ('26.1/4)3.4 (4월)1.5 (5)1.7

○ (사업소득) 서비스업생산 · 소매판매지수 상승 등으로 증가

* 사업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0.2 (3/4)0.2 (4/4)3.0 ('26.1/4)2.6 (2/4)3.8

** 서비스업생산지수^{경상}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2.8 (3/4)4.4 (4/4)3.8 ('26.1/4)6.0 (2/4p)8.3
소매판매액지수^{경상}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1.0 (3/4)3.3 (4/4)3.2 ('26.1/4)5.0 (2/4p)6.1

○ (이전소득)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영향으로 증가

* 이전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5.1 (3/4)17.7 (4/4)7.9 ('26.1/4)9.7 (2/4)20.4

** 기초수급자 수도권^{비수도권} 55만원, 비수도권^{비수도권} 60만원, 차상위·한부모 수도권^{비수도권} 45만원, 비수도권^{비수도권} 50만원,
소득하위 70% 이하 국민 대상 수도권^{비수도권} 10만원, 비수도권^{비수도권} 15만원, 인구감소지역 20~25만원 지급

분위별 소득

□ 1~5분위 모든 분위에서 소득 증가

* 분위별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전체)+4.5 (1분위)+7.5 (2)+5.9 (3)+5.5 (4)+4.0 (5)+3.8

○ (1분위) 근로소득(+3.4%) · 이전소득(+9.8%) 증가하며 총소득 증가

* 1분위 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3.1 (3/4)11.0 (4/4)4.6 ('26.1/4)2.7 (2/4)7.5

↳ 소득원천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근로)3.4 (사업)△0.8 (이전)9.8 <(공적)11.6 (사적)4.2>

○ (5분위) 사업소득(+11.0%) · 이전소득(+31.9%) 증가하며 총소득 증가

* 5분위 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0.9 (3/4)0.4 (4/4)6.1 ('26.1/4)4.2 **(2/4)3.8**

↳ 소득원천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근로)△1.7 (사업)11.0 (이전)31.9 <(공적)40.4 (사적)10.7>

지출 · 가계수지

□ (비소비지출) 이자비용, 사회보험 지출 등 비소비지출 증가(106.0만원, 1.9%)

* 비소비지출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4.3 (3/4)△0.9 (4/4)6.5 ('26.1/4)1.2 **(2/4)1.9**

비소비지출 주요 비목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이자)12.1 (사회보험)5.6 (연금기여금)4.3

□ (소비지출) 가정용품·가사서비스(+17.9%), 음식·숙박(+3.5%), 오락·문화(+7.6%) 등 증가하며 소비지출 증가(293.2만원, 3.4%)

* 소비지출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0.8 (3/4)1.3 (4/4)3.6 ('26.1/4)5.3 **(2/4)3.4**

소비지출 주요 비목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가정용품·가사서비스)17.9 (오락문화)7.6 (보건)4.2 (음식숙박)3.5

○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비지출은 +0.4% 증가

* 실질소비지출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△1.2 (3/4)△0.7 (4/4)1.2 ('26.1/4)3.1 **(2/4)0.4**

□ (가계수지) 처분가능소득 증가(423.5만원, 5.2%), 흑자액 증가(130.2만원, 9.6%)

* 처분가능소득 = 총소득 - 비소비지출 /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

** 처분가능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1.5 (3/4)4.6 (4/4)3.4 ('26.1/4)2.7 **(2/4)5.2**

흑자액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3.3 (3/4)12.2 (4/4)2.7 ('26.1/4)△3.1 **(2/4)9.6**

소득분배

□ (5분위배율)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5분위배율은 4.97배로 전년동기대비 하락(△0.48배p)

※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= (시장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공적이전지출) / $\sqrt{\text{가구원수}}$

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(배, 2분기) : ('22)5.60 ('23)5.34 ('24)5.36 ('25)5.45 **(26)4.97**

※ 분기별 가구소득은 계절성, 변동성 등으로 가계동향의 5분위 배율을 통해 소득 분배를 분석하는 것은 주의 필요

→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 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(연간지표)를 통해 판단

□ (평가) '26.2분기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실질가계소득·소비 증가

- (소득·소비)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실질가계소득 증가, 실질소비지출도 '25.4분기 증가전환 이후 지속 증가

* 실질가계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0.0 (3/4)1.5 (4/4)1.6 ('26.1/4)0.4 **(2/4)1.5**

실질소비지출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△1.2 (3/4)△0.7 (4/4)1.2 ('26.1/4)3.1 **(2/4)0.4**

- (소득분배)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('26.4~7월)* 등 영향으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개선

* 기초수급자 수도권55만원, 비수도권60만원, 차상위·한부모 수도권45만원, 비수도권50만원,

소득하위 70% 이하 국민 대상 수도권10만원, 비수도권15만원, 인구감소지역 20~25만원 지급

*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(배, 2분기) : ('22)5.60 ('23)5.34 ('24)5.36 ('25)5.45 **(26)4.97**

□ (대응방향) 경기회복 흐름에 이어 잠재성장률 반등 전략 추진에 총력 + 물가안정 등 민생부담 경감 + 고용여건 개선 노력도 병행

-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, 중동전쟁 이후 전략, 잠재성장률 반등, 구조 혁신 등 「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」 속도감 있게 추진
- 추석명절 대비 성수품 물가안정, 취약계층 부담완화 방안 등을 담은 「추석 민생안정대책」 마련(9월) 등 민생부담 경감에 만전
 - '27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(^{4인가구}6.70%) 등 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계속
- 아울러,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「청년일자리 회복방안」을 마련하고, 3대 메가프로젝트 조속 추진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병행